

한국에너지

Korea Energy News (한국에너지신문)

Title: 국제석유가스전시회 국내서 처음 열린다

석유협회, 6월 25일~27일 'Asian Oil & Gas Show 2008' 개최
개발·정제 등 관련분야 총망라... 산유국·소비국 네트워크 형성
변국영 기자 bgy@koenergy.co.kr

석유개발·수송·정제 등 석유가스와 관련된 주요 기업과 장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대한석유협회와 인덱스홀딩스사는 공동으로 오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Asian Oil & Gas Show 2008'을 개최한다. 대한석유협회와 인덱스홀딩스사는 이와 관련 지난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시회 성격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석유가스의 개발·수송·정제·설비 등 모든 관련분야를 망라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15개국에서 60~80개 업체가 참여하고 산업 관련자 및 일반인 등 약 5000여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전시회 기간 중 산유국 정부 및 에너지업계 주요인사를 초청해 '석유가스 국제컨퍼런스'를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컨퍼런스에서는 ▲국제 석유가스산업 전망 ▲아시아지역의 석유가스산업 전망 ▲중동의 석유 및 에너지 ▲기후변화, 환경, 바이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석유협회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산유국 및 소비국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에너지관련 국제정세 및 자원개발 현황, 정제기술 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국제 현안을 다룸으로써 미래지향적 에너지소비구조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미스 부 아밍 RECISO 위원장은 석유가스 소비국으로서의 한국시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눈부신 경제개발과 안정적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매우 매력적인 투자 처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아시아지역에서 석유가스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동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최근 5~10년 사이에 세계 석유소비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며 “그것은 바로 중국과 인도가 주요 소비국으로 부상함으로써 아시아시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03월 24일